

중국 年畫의 욕망 코드와 解讀의 상호 관계*

權錫煥**

< 목 차 >

1. 서론
2. 長壽 코드의 吉祥의 해독: 동방사에서 박쥐까지
3. 辟邪 코드의 進慶의 해독: 二將軍에서 동자까지
4. 司命 코드의 祈福의 해독: 조왕신에서 재물신까지
5. 矛盾과 사상의 統合의 해독: 하나에서 백까지
6. 결론

1. 서론

年畫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점포 등에 붙여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그림이다. 당송 이전에 기원하였지만 明·清 시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현재까지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연화가 이렇게 명청 시대 이후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중국 민족의 집단 정서와 심리, 생활철학과 관념체계가 담겨져 있고, 특히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대에 이르러 출판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목판 연화가 대량으로

* 본 논문은 2010년 상명대학교 교내 융복합집적화 연구 과제(2010-A000-130)에 의해 작성된 것임. 본래 과제 명칭은 〈年畫(새해맞이 그림)를 통한 문화 코드 읽기와 문화콘텐츠 발굴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과제 명칭 안에서 연구 범위를 좁혀 작성한 것이다.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생산되었고, 이것이 대중들 사이에 널리 유통-배포-소비되었다. 대중들은 문자 텍스트 대신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연화는 일종의 코드 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대중들의 욕망이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며, 그것이 연화의 재생산에 다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화는 화가의 개성과 미의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욕망이나 기호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른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Encoding and Decoding(1973)”에서 말한 소비자가 다시 메시지의 생산자가 되는 순환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연화의 생산자가 연화 속의 이야기와 등장인물을 통해 전달하려는 욕망 코드는 소비자들의 반응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통해 재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화 중 흔히 볼 수 있는 <一品當朝> · <滿載而歸> · <財源聚寶> · <麒麟送子> · <張仙送子> · <福祿壽星> · <珍寶財神> · <和合二仙> · <天官賜福> 등은 대체적으로 고유한 의미를 함유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고, ‘辟사(辟邪) · 진경(進慶) · 길상(吉祥) · 감계(鑑戒)’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화가 대중의 욕망을 기호화(encoding)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기호해독(decoding)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상징이 주는 외연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메시지를 완전히 반대로 해독기도 한다. 수용자는 어떤 대안적인 준거 틀 내에서 상징을 재구성하기 위해 선호되는 의미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메시지를 해체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연화 속의 각각의 기호가 나타내는 고유한 상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호들이 당시 대중과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또 대중들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기호학적 방법을 통해 도출된 관습 코드의 상징성과 이에 대한 解讀의 차이에 주목하려고 한다. 특히 명대에 이르러 중국인의 욕망체계가 형성되었다면, 그것이 형성되는데 연화가 어떻게 작

용했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화의 기호화와 기호해독의 상호 관계를 東方朔, 二將軍, 竈王神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모순과 이질적 사상 간의 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長壽 코드의 吉祥의 해독: 동방삭에서 박쥐까지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그 욕망은 연화에 담긴 중요한 코드이다. 대중들에게 장수 코드로서 관습적 혹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東方朔> 연화 속의 '동방삭'이다.

연화 속의 주인공 동방삭은 《史記》¹⁾와 《漢書》²⁾의 열전에 수록된 실존 인물로서, 漢武帝 당시 常侍郎과 太中大夫 등의 관리를 지냈다.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해학과 골계(滑稽)에 뛰어났으며, 당시 문단에서 유행하던 사부(辭賦) 작가로 유명하였다. 그의 전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상과 학문에 구애되지 않고 시서학(詩書學)과 병법(兵法)은 물론이거니와 음양참위학, 의약학, 외교학 등까지 통달하였고, 현실 참여와 물러남이 자유로웠으며, 재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수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고, 더욱이 '三千甲子東方朔'과는 거리가 멀다.

위진(魏晉) 시대에 이르러 동방삭에 관한 인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동방삭과 관련된 기괴한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던 것 같다.晉의 夏侯湛은 <漢太中大夫東方朔先生畫贊并序>에서 동방삭과 관련된 기괴한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있다고 하면서 "이야기꾼들은 또한 동방삭 선생이 호흡을 조절하여 오래된 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받아들이며, 유체 이탈하여 세

1) 《史記·滑稽列傳·東方朔傳》.

2) 《漢書》卷六十五, <東方朔傳> 第三十五.

속을 떠나 신선이 되었으며, 정신과 교통하고 조화를 부려 그의 영혼은 별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것은 기괴하고 황당한 것이라서 온전히 따질 것이 못된다.”³⁾라고 말하였다. 떠도는 이야기가 비록 기괴하고 황당하다고 말했지만, 대중들은 이미 동방삭에게 신비한 색채를 입히기 시작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동방삭이 위진 시대에 이르러 신비적 색채를 띠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위진 시대에 漢 劉向의 이름을 빌어 지은 것으로 알려진 《列仙傳》(卷下)⁴⁾에는 동방삭은 이미 신선의 계보에 들어있었다. “한나라 宣帝 초기에, 동방삭은 관직을 버리고 난세를 피하였다. 관사에 수건을 걸어두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중에 회계 지방에서 약장수로 나타났는데, 오호(五湖, 太湖) 지역의 지식인들은 그가 세성정(歲星精)일 것이라 의심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은 동방삭이 바람처럼 사라져 신선이 되었다가 ‘歲星(木星)’의 정령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洞冥記》·《獨異志》 卷上⁵⁾·

3) 이 문장은 《文選》卷四十七 頌·贊 <東方朔畫贊一首并序>으로 수록되어 있다.

夏侯孝若 大夫諱朔，字曼倩，平原厭次人也。魏建安中，分厭次以爲樂陵郡，故又爲郡人焉。事漢武帝，〈漢書〉具載其事。先生環境博達，思周變通，以爲濁世不可以富貴也，故薄游以取位。苟出不可以直道也，故頡頏以傲世。傲世不可以垂訓也，故正諫以明節。明節不可以久安也，故談諧以取容。潔其道而穢其迹，清其質而濁其文。弛張而不爲邪，進退而不離群。若乃遠心曠度，瞻智宏材。倜儻博物，觸類多能。合變以明竿，幽贊以知來。三墳·五典·八索·九丘，陰陽圖緯之學，百家衆流之論。周給敏捷之辯，支離覆逆之數。經脈藥石之藝，射御書計之術。乃研精而究其理，不習而盡其功。經目而諷於口，過耳而關於心。夫其明濟開豁，包含弘大，凌轢卿相，嘲哂豪桀。籠罩靡前，貽籍貴勢。出不休顯，賤不愛戚。戲萬乘若寮友，視儔列如草芥。雄節邁倫，高氣蓋世，可謂拔乎其萃，游方之外者已。談者又以先生嘯吸冲和，吐故納新，蟬脫龍變，棄俗登仙。神交造化，靈爲星辰。此又奇怪惚恍，不可備論者也。大人來守此國。僕自京都，言歸定省。睹先生之縣邑，想先生之高風。徘徊路寢，見先生之遺像，逍遙城郭，觀先生之祠宇。慨然有懷，乃作頌焉。其辭曰：矯矯先生，肥遯居貞。退不終否，進亦避榮。臨世濯足，希古振纓。涅而無滓，既濁能清。無滓伊何，高明克柔。能清伊何，視汗若浮。樂在必行，處論罔憂。跨世凌時，遠蹈獨游。瞻望往代，爰想遐踪。邈遯先生，其道猶龍。染迹朝隱，和而不同。棲遲下位，聊以從容。我來自東，言適茲邑。敬問墟墳，企佇原隰。墟墓徒存，精靈永戢。民思其軌，祠宇斯立。徘徊守寢，遺像在圖。周旋祠宇，庭序荒蕪。椽棟傾落，草萊弗除。肅肅先生，豈爲是居，是居弗形。悠悠我情，昔在有德，罔不遺靈。天秩有禮，神監孔明。仿佛風塵，用垂頌聲。”

4) 《列仙傳》(卷下) “東方朔者，平原太厭次人也，久在吳中，爲書師數十年。武帝時上書說便宜，拜爲郎。至昭帝時，時人或謂聖人，或謂凡人，作深淺顯默之行，或忠言，或戲語，莫知其旨。至宣帝初，棄郎以避亂世，置幘官舍，風飄之而去。後見於會稽賣藥，五湖智者，疑其歲星精也” 東方奇達，混同時俗，一龍一蛇，豈豫榮辱？高韻冲霄，不羈不束。沉迹五湖，騰影陽谷。

5) 唐 李亢 《獨異志》 卷上 “漢東方朔，歲星精也。自入仕漢武帝，天上歲星不見。至其死後，星乃

《太平廣記》卷六⁶⁾·《漢武帝內傳》⁷⁾ 등에서 대체로 동방삭이 별의 정령으로 환생했다고 믿었고, 3천년에 한 번 신선으로 바뀐다는 ‘세수(洗髓)’를 세 차례 하고, 2천년에 한 번 형체를 바꾼다는 ‘벌모(伐毛)’를 다섯 차례 했다고 하였다. 이점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동방삭은 장수 혹은 불멸의 신선으로 여겨졌다.

이상과 같이, 동방삭은 연화의 주인공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장수 혹은 불멸의 상징이 되었다. 연화 시대에 이르러 동방삭은 다른 사물들과 결합하기 시작한다. 첫째 연화 속 동방삭은 대부분 손에 커다란 복숭아(桃)를 들고 등장한다는 점이다. 宋 육전(陸佃)은 《비아(埤雅)》에서 “바다위에 반도 복숭아가 있는데 3천년이 되어야 익는다. 천년이 되어야 꽃이 피고, 천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⁸⁾라고 하였다. 동방삭 손에 들린 복숭아가 바로 이 ‘반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진다. 그 하나는 3월 3일에 개최되는 반도회(蟠桃會)에 관한 것으로, 西王母가 생일을 맞이하여 요지(瑤池)에서 반도회를 개최하면 신선들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였다. 잔치에서는 흰 원숭이가 서왕모에게 반도를 헌상하고, 마고(麻姑)가 술을 따른 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하한다. 이것이 바로 무강(武强) 지역의 대표적인 연화인 <마고헌수(麻姑獻壽)>의 내용이다. 또한 잔치 상 앞에 서왕모가 앉아 있고, 八仙과 松鶴, 壽星이 그 좌우에 앉아 있으며, 가운데에는 흰 원숭이가 쟁반에 반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연화가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蟠桃大會> 40×55 청나라 산동 濰縣)

동방삭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전설이 있다. 서왕모가 한무제에게 생일 선물로 반도를 주면서, 동방삭이 자신의 반도를 세 번이나 도둑질해 갔다고 말했다.

出.”

- 6) 《太平廣記》卷六 “朔以元封中，遊鴻濛之澤，忽遇母採桑於白海之濱。俄而有黃眉翁，指母以語朔曰：「昔爲我妻，託形爲太白之精，今汝亦此星之精也。吾却食吞氣，已九十餘年，目中童子，皆有青光，能見幽隱之物。三千年一返骨洗髓，二千年一剝皮伐毛，吾生來已三洗髓五伐毛矣。」”
- 7) 《漢武帝內傳》 “其後東方朔一旦乘龍飛去。同時衆人，見從西北上冉冉，仰望良久，大霧覆之，不知所適。”
- 8) 《埤雅》二十卷(浙江巡撫采進本)：“海上有蟠桃，三千年乃熟，一千年開花，一千年結子”

이것이 이른바 ‘東方朔偷桃’ 전설이다.⁹⁾ 이 전설은 후대 전통회화 속의 소재이면서¹⁰⁾ 또한 연화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양자의 상징적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전설 속에 등장하는 반도는 모두 동방삭의 장수 상징을 강화시키는 코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화 속에 동방삭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동물은 사슴(鹿)이다. 사슴은 제왕의 상징으로 《宋書·符瑞志》에 “흰 사슴은 제왕의 큰 은혜가 아래 백성들에게 미쳤을 때 나타난다(白鹿, 王者明惠及下則至)”고 했고, 《應瑞圖》에서는 “제왕이 성인의 법도를 계승하여 빠트리거나 잃지 않았으면 흰 사슴이 나타난다(王者承先聖法度, 無所遺失, 則白鹿來)”¹¹⁾고 하였다. 그리고 《漢書·蒯通傳》에 “장차 진나라가 제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니, 여러 나라가 함께 진나라를 축출하였다.(且秦失其鹿, 天下共逐之)”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張晷은 “鹿은 제위를 비유한다(鹿喻帝位)”라고 주석하였으니, 鹿은 ‘祿’으로 해석된다.¹²⁾ 그러므로 동방삭과 같이 등장하는 ‘鹿’은 단순히 ‘祿’과의 해음(諧音) 관계만이 아니라, 동방삭과 한무제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동방삭 및 사슴과 관련성이 깊은 것은 수성(壽星)이다. 연화 속의 수성은 노인 형상으로, 한 손에 긴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손엔 복숭아와 영지 등을 들고 있다. 어떤 때는 사슴을 타고 나타나는데 <수성기록(壽星騎鹿)> 연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다. ‘壽星’은 《史記·封禪書》에 기록이 보인다. 이에 대해 司馬貞은 “壽星은 南極老人星인데,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편안하므로 제사를 지내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였다”¹³⁾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수성이 노인 형상을 하고 장수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복숭아와 사슴 등과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동방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9) 《古小說鈎沈》《漢武故事》“東郡送一短人, ……召東方朔問。朔至, 呼短人曰: ‘巨靈, 汝何忽叛來, 阿母還未?’ 短人不對, 因指朔謂上曰‘王母種桃, 三千年一作子, 此兒不良, 已三過偷之矣’

10) 明 吳偉 <東方朔偷桃圖>, 清 王禮 <東方朔偷桃圖>, 清 徐和鑾 <東方朔偷桃圖> 등이 유명하다.

11) 舒惠芳, 沈泓 共著 《凡塵俗子》, 中國工人出版社, 208쪽 제인용

12) <http://baike.baidu.com/view/21540.htm>

13) 《史記·封禪書》司馬貞索隱 “壽星, 蓋南極老人星也, 見則天下理安, 故祠之以祈福壽也”

있다.

동방삭은 또한 <福祿壽星>연화와 관련성이 깊다. 도교에서 ‘南極老人壽德星君’·‘上清福德星君’·‘上清祿德星君’을 신봉하였는데, 사람들은 福星은 天官이고, 祿星은 文昌이며, 壽星은 南極老人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수성’을 ‘복성’·‘녹성’과 함께 三星으로 연결시켰고 장수를 봉록 그리고 행복과 연계시켰다. 상징의 수를 하나에서 셋으로 확장한 것은 인간의 욕망 증대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天官賜福>·<三星高照> 연화도 모두 동방삭에 대한 욕망의 증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동방삭을 복숭아, 사슴, 歲星, 壽星, 福星, 祿星, 如意, 이외에도 박쥐[蝙蝠], 八仙, 松鶴 등 다양한 상징코드와 연결시켜 자신들의 욕망을 반영하였다. 이것은 장수 코드를 길상적으로 해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辟邪 코드의 進慶的 해독: 二將軍에서 동자까지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이다. 그 욕망이 반영된 것이 門神 연화이다. 문신 연화는 출입문에 붙여 한 해의 가정과 개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문신이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영혼의 평안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문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이다. 중국의 연화 학자인 王樹村은 신도와 울루에 대하여 《山海經》·《論衡·訂鬼》¹⁴⁾·《風俗通義·禮典》¹⁵⁾·蔡邕의 《獨斷》¹⁶⁾·《三教源流搜神大全》¹⁷⁾ 등의

14) 《論衡·訂鬼》에서는 《山海經》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山海經》又曰：滄海之中，有度朔之山，上有大桃木，其屈蟠三千里，其枝間東北曰鬼門，萬鬼所出入也。上有二神人，一曰神荼，一曰鬱壘，主閔領萬鬼，惡害之鬼，執以葦索而食虎。於是黃帝乃作禮，以時驅之。立大桃人，門戶畫神荼·鬱壘與虎，懸葦索以御凶魅。”

기록과 민간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전설 등을 인용하여 설명한 바가 있다.¹⁵⁾ 그가 인용한 기록을 살펴볼 때, 신도와 울루는 상고 시대 동해 가운데 있는 度朔山의 3천리 가지가 뻗어 있는 복숭아나무에 살았던 형제신이다. 鬼門에서 해악을 끼치는 악귀를 갈대 새끼줄(葦索)로 묶어 호랑이 먹이로 삼았다고 한다. 黃帝가 예법을 제정하여 사회의 질서를 수립하자, 신도와 울루는 실체가 아닌 형상으로만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황제는 복숭아나무 인형을 출입문에 세우거나, 도판(桃板) 위에 신도와 울루(호랑이 포함) 형상을 그리거나 갈대 새끼줄을 내려뜨리기도 하여 악귀를 물리쳤다고 한다. 결국 신도와 울루는 정치 질서 확립을 위한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漢代에 이르러 신도와 울루는 12월 납제석(臘除夕)에 흉악을 막는 민간 의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부터 복숭아나무는 도부판, 갈대 새끼줄은 금줄, 호랑이는 四神과 관련을 맺게 되었고, 역시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두 신은 항상 갑옷으로 무장하고, 장검, 창, 비수, 도끼, 철 채찍, 편간을 들고 등장한다.

이상의 門神과 달리, 東漢 이후부터는 내실의 문 앞에 새로운 문신이 등장하였다. 무사 대신에 文士 혹은 사녀, 심지어는 시녀 들이 문신으로 등장하였다. 사람들은 거리와 붙어있는 외문과 달리 내실의 문을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 붙는 문신은 사대부의 기호품인 금기서화(琴棋書畫), 기린용봉(麒麟龍鳳), 대자상조(帶子上朝, 郭子儀 고사와 관련), 오자등(五子燈, 五子登科), 취보분(聚寶盆)과 원보수(元寶樹)를 든 재신(財神) 비간(比干) 등

15) 《風俗通義·禮典》 謹按：黃帝書：「上古之時，有茶與鬱壘昆弟二人，性能執鬼，度朔山上立桃樹下，簡閱百鬼，無道理，妄爲人禍害，茶與鬱壘縛以葦索，執以食虎。」於是縣官常以臘除夕，飾桃人，垂葦茭，畫虎於門，皆追效於前事，冀以衛凶也。

16) 蔡岳 《獨斷》 儋牙虎神茶鬱壘二神：海中有度朔之山，上有桃木蟠屈三千里，卑枝東北有鬼門，萬鬼所出入也。神茶與鬱壘二神居其門，主閱領諸鬼，其惡害之鬼執以葦索食虎，故十二月歲竟常以先臘之夜逐除之也，乃畫茶壘，并懸葦索於門戶，以禦凶也

17) 《三教源流搜神大全》卷四：東海度朔山有大桃樹，蟠屈三千里，其卑枝向東北，曰鬼門，萬鬼出入也。有二神，一曰神茶，一曰鬱壘，主領閱衆鬼之出入者，執以飼虎。於是黃帝法而象之，因立桃板於門戶上，畫神茶·鬱壘，以御凶鬼。此門桃板之制也。蓋其起自黃帝，故今世畫神於板上，猶於其下書“左神茶”·“右鬱壘”，以除日置之門戶也。

18) 王樹村，《中國門神畫》，天津人民出版社，2005. 6-20쪽

과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류의 문신도는 후대 문동도(門童圖)·영희도(嬰戲圖)로 파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신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이장군이다. 이장군은 위지공(尉遲恭 585-658)과 진숙보(秦叔寶 ?- 638년 졸)를 말하는데, 唐太宗 李世民(599-649)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당나라를 세운 명장들이다. 위지공의 사적에 관해서는 《舊唐書·列傳十八 尉遲敬德列傳》《新唐書·列傳第十四 屈實尉遲張秦唐段》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것을 참고하여 그의 사적을 요약해 보자. 위지공은 악국공(鄂國公)에 책봉되었고 능연각(凌烟閣) 24 공신 중의 하나이다. 시호는 충무(忠武)이고 용맹하여 전공을 세웠다. 현무문(玄武門) 왕자의 변 당시 이세민을 도와 제위에 올랐다. 경주도행군총관(涇州道行軍總管) 등의 관직을 지냈으며, 만년에는 방술을 신봉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진숙보는 익국공(翼國公)에 책봉되었고, 이름은 경(瓊), 字는 숙보(叔寶)이고 능연각 24공신 중의 하나이다. 이세민을 제위에 등극시킨 공훈을 세웠고,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유명한 장군이었다. 이상의 요약된 기록으로 보아, 두 사람 모두 당태종 즉위 공신으로서 여러 번 전쟁에 출전하여 전공을 세운 인물로 유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략 명대에 이르러 두 장군은 신비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의 증거로는 《三教搜神大全》의 다음 기록을 들 수 있다.

당 태종이 몸이 불편했는데, 침실 문 밖에서 벽돌과 기왓장을 내던지며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태종이 이를 두려워하여 신하들에게 말했다. 진숙보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평생 박을 깨듯이 사람을 죽였고, 개미가 모이듯 시체를 쌓아올렸습니다. 어찌 요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원컨대 호경덕(胡敬德)과 함께 무장을 하고 문 앞에 서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은 그가 말한 대로 하니 밤에 과연 아무런 소란이 없었다. 태종이 이를 기뻐하여 두 사람에게 밤을 지새우며 지키게 하고 화공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도록 명령하였다. 손에는 옥도끼를 쥐고, 허리에는 채찍과 흰 명주 그리고 활과 화살을 찼다. 머리털이 곧두선 모습이 평상시의 모습과 같았다. 이 그림을 궁궐(宮掖: 궁궐의 좌우 문)에 걸어두자 요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세에 이를 답습하여 영원히 문신이 되었다.¹⁹⁾

이 기록을 보면, 당태종 때부터 이장군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궁궐 문에 붙었고 이것이 계승되어 민간에서 문신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三教搜神大全》은 작자 미상이지만, 明刻 圖會本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는 진숙보와 위지공이 문신 연화의 주인공이 된 것은 대략 명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秦叔寶·尉遲恭> 明 北京 각각 92.8×61.5cm)

또 다른 기록으로는 《西遊記》 10회 <二將軍宮門鎮鬼 唐太宗地府還魂> 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증(魏徵)이 당 태종과 바둑을 두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 꿈결에 용왕을 참수하였다. 밤이 되자 용왕이 궁중으로 찾아와 당 태종에게 목숨을 살려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태종은 이것 때문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진경과 위지공이 궁문을 지키자 용왕의 원혼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태종은 화공을 시켜 진경과 위지공의 화상을 그려 붙이도록 하여 사숭(邪崇)을 막았다. (<錦地門神> 청대 천진 양류 청 54×32cm) 《西遊記》 역시 명대의 기록이므로 당시 사람들의 이장군에 대한 인식은 《삼교수신대전》과 유사하다.

연화 속의 문신 진숙보와 위지공은 가슴에 채찍을 들고 등장하기 때문에 <鞭鐃門神:채찍문신>으로도 부른다.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용을 수놓은 옷을 걸쳤으며, 가슴을 찢고 배를 내미는 모습을 하고 있다. 위지공은 표범머리에 고리 눈, 들창코에 검은 얼굴을 하고 있다.(<鞭鐃門神>, 청초 陝西 漢中 102×64cm, 2폭) 이장군은 손에 옥도끼를 쥐고, 허리에는 채찍과 흰 명주 그리고 활과 화살을 차고 있다. 이 장군은 귀신의 범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무기로 무장하고 검은 얼굴로 위용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이장군은 본래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장군 연화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등장인물과 코드를 확대하며 변화를 한다. 가장 흔한 것은 다섯 명의 동자와

19) 《三教搜神大全》 唐太宗不豫，寢門外拋磚弄瓦，鬼魅呼號，太宗懼之，以告群臣。秦叔寶出班奏曰：臣平生殺人如剖瓜，積屍如聚蟻，何懼魍魎乎！願同胡敬德戎裝立門以伺。太宗可其奏，夜果無驚，太宗嘉之，謂二人守夜無眠。太宗命畫工圖二人之形像全裝，手執玉斧，腰帶鞭鐃弓箭，怒髮一如平時。懸於宮掖之左右門，邪崇已息，後世沿襲，遂永爲門神。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자들은 기린을 타고 있거나, 손에는 연꽃·장선(障扇)·금전·경(磬)을 쥐고 있다. 연화 속 동자들의 손에 든 상징물을 통해 볼 때, 이것들은 ‘연생귀자(連生貴子:연속으로 귀한 아들을 낳다)’를 구성하는 상징이며, 또한 ‘오자등과(五子登科: 다섯 아들이 모두 급제하다)’ 등의 상징이다(<立斧門神> 청대 江蘇 南京 37×21cm)

또한 이장군 손에 들린 쟁반 안에는 자금관(紫金冠)·원보(元寶)·여의주 등의 물건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고, 몽게구름·암팔선(暗八仙)·꽃바구니·보검·횡적(橫笛)·호로(葫蘆)·박판(拍板)·부들부채·어고(漁鼓)·연꽃 등이 함께 배경으로 새겨져 있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장군은 명대에 이르러 문신으로 정착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적 기능이 진경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司命 코드의 祈福的 해석: 조왕신에서 재물신까지

조왕신(부뚜막신 조신竈神)은 부엌을 관장하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조왕신은 조왕(竈王)·조군(竈君)·조왕야(竈王爺)·조공조모(竈公竈母)·동주사명(東廚司命)·조사야야(竈司爺爺, 절강성 구주衢州 지역에서 이렇게 부른다)·동주사명구영원왕정복신군(東廚司命九靈元王定福神君:조공과 조모를 동시에 이렇게 부른다)·사명진군(司命眞君)·구천동주연주(九天東廚烟主)·택호천존(護宅天尊)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²⁰⁾

수(隋)나라 두태경(杜台卿)은 《옥촉보진(玉燭寶典)》에서 《조서(竈書)》를 인용하여 조왕신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조신은 성이 소(蘇)이고, 이름은 길리며, 부인의 이름은 박첩이다”²¹⁾라고 하여, 조왕신의 이름이 ‘소길’이

20) 이하 조왕신과 관련된 사실은 百度百科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http://baike.baidu.com/view/44125.htm>

21) 《玉燭寶典》《竈書》引用“竈神，姓蘇，名吉利，婦名搏頰”

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왕신은 명칭이 많고, 심지어 인간과 신 사이를 넘나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명칭만큼이나 조왕신이 포괄하는 의미도 다양하다.

민간에서 조왕신을 신봉하기 시작한 것은 상(商)나라 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문신(門神)·정신(井神, 우물신)·축신(厠神 축간신)·중류신(中溜神, 后土神)과 함께 가정의 5대 신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가정의 안전을 보호하는 신이었던 셈인데, 주로 불과 관련이 있었다. 《淮南子·汜論篇》에 “염제가 불을 만들고, 죽어서는 조신이 되었다”²²⁾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조왕신은 인간이 불을 발명하고 화식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왕신은 불을 관리하였고, 자연스럽게 부역을 주관하였으며, 음식을 관장하는 신이 된 셈이다.

그러나 진(晉) 이후에 이르면, 조왕신은 부역을 관리하던 신으로부터 인간의 선악을 관리하는 사명신(司命神)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음력 선달 스무 사흘(일설에는 스무나흘)에서 그믐까지 조왕신은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인간의 선악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갈홍(葛洪)은 《抱朴子·微旨》에서 “그믐밤에 조왕신은 하늘에 올라가 인간의 죄상을 보고하였다. 죄가 크면 1기를 박탈하는데, 1기는 삼백일이다. 죄가 작은 사람은 1산(算)을 빼앗았는데, 1산은 백일이다”²³⁾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조왕신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인간세계로 내려와 인간의 선악을 파악하는 일을 하였다고 믿었던 것이다. 조왕신의 좌우에는 시중을 드는 신이 있다. 그들은 각각 ‘선관(善罐: 선의 항아리)’과 ‘악관(惡罐: 악의 항아리)’을 들고 있다. 이들은 한 가족의 행동거지를 항아리 속에 기록해두었다가 연말에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12월 23일(남방 지역의 풍속에는 음력 24일 저녁)이 조왕신이 인간세상을 출발하여 옥황상제에게 가는 날인데, 이날을 ‘사조(辭竈)’라고 부른다. 각 가정에서는 이 날이 되면 ‘조신을 환송한다(送竈神)’. 그리고 나서 정월

22) 《淮南子·汜論篇》 “炎帝作火而死爲竈”

23) 《抱朴子·微旨》 月晦之夜, 竈神亦上天白人罪狀. 大者奪紀, 紀者, 三百日也. 小者奪算, 算者, 一百日也.

초사흘(일설에는 선달그믐)에 다시 조왕을 맞이하는데, 이를 '접조'(接竈 혹은 接神)라고 부른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찰진 당원보(糖元寶)·사미탕(炒米糖)·땅콩사탕(花生糖)·깨사탕(芝麻糖) 그리고 찹쌀 떡 등을 마련하여 조왕신의 입을 막아 인간의 죄악을 옥황상제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민속이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 좋은 일을 말해야, 인간 세상에 평화가 보장된다(上天言好事, 下界保平安)'는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조왕신의 낚은 지마(紙馬)를 떼어내 불사르고, 접신할 때 다시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지마를 붙인다.

청대에 이르면, 조왕신이 결혼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산둥 지역의 민간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장만창(張萬倉)이란 자가 살았는데, 검소한 아내 곽정향(郭丁香)을 버리고, 낭비가 심한 왕해당(王海棠)과 결혼하여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두 눈을 잃은 장만창이 어느 부잣집 주방으로 동냥을 얻으러 갔다. 집 주인이 그에게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을 주었다. 그는 국수 한 가닥을 먹다가 곽정향의 긴 머리카락이 생각나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분신자살하였다. 상제는 그가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조군으로 봉하였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조왕신을 통하여 조강지처의 소중함과 부부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연유로 부부의 연을 맺는 혼사에 조왕신이 등장한다.

그래서 혼인 날짜를 고를 때 조왕신을 고려한다. 조왕신이 하늘에 올라가는 기간 동안은 흉살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아주 좋은 길일이라는 것이다. 반영폐(潘榮陞)는 《제경세기시승·난세(帝京歲時紀勝·亂歲)》에서 "25일에서 연말까지 '난세일'이라고 전해진다. 조신이 하늘로 올라가 연말에 사방을 수레를 타고 돌을 때에는 여러 흉살이 작용하지 못하기에 대부분 이 닷새 안에 결혼식을 올린다. 그래서 이 때를 백무금지(百無禁忌)라고 한다²⁴⁾라고 하였다.

www.kci.go.kr

24) 《帝京歲時紀勝·亂歲》 "廿五至除夕傳爲亂歲日。因竈神已上天，除夕方旋駕，諸凶煞俱不用事，多於此五日內婚嫁，謂之百無禁忌"

이처럼 조왕신은 집안의 안전을 돌보는 화신, 부엌신, 음식신이었다가, 인간의 선악을 관장하는 사명신이 되었고, 때로는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애정의 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왕신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이고 신령스런 존재만이 아니다. 매우 친근한 존재로 받아들여 조왕신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그를 잘 통제하면 인간세계의 행복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로 사람들은 조왕신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 찰진 음식으로 그의 입을 막으면 옥황상제에게 함부로 죄상을 보고하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조왕신과 함께 소통하고 노닐며 스스로 즐겼다. 이렇게 보면, 조왕신은 절대적인 신격이 아니라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동반자였던 것이다.

연화 속에 등장하는 조왕신의 모습은 좀 다르다.

민간에서는 매년 설달이 되면 ‘조왕마(寵王馬)’가 시장에 등장한다. 그 조왕마 속의 조왕신은 혼자 앉아 있는 독좌(獨座), 부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쌍좌(雙座)’, 그리고 처첩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삼두좌(三頭座)’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왕신이 상천하는 모습이다. 조왕신은 푸른 갈기의 붉은 말을 타고 상서로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남천문(南天門)’을 지나 상천한다. 음력 12월 23일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는데, 조왕신은 손에 홀을 잡고 있다. 인간의 선악을 보고 하는 사명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一家之主>, 청대 북경 33×22cm, 채색 인쇄). 연화 속에 쓰인 ‘東廚司命’이란 글자 역시 조왕신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사명신임을 나타내고 있다. ‘福水’, ‘善火’ 등의 글자가 함께 새겨진 것은 (<上天寵君> 청대 북경 23×17cm, 채색 인쇄) 조왕신이 불과 물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을 내리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왕신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홀을 잡고 있으며, 좌우 신동들은 손에 ‘善’과 ‘惡’이란 글자가 새겨진 푸른 향아리를 들고 있다. 이것이 ‘선관’과 ‘악관’이다. 왼쪽에는 주부(主簿)가 오른쪽에는 판관(判官)이 부록(符籙)을 품고 서 있다. 조왕신의 의자 뒤 왼쪽에 서 있는 무관은 고명(誥命)을 받들고, 오른쪽의 문관은 관인(官印)을 받들고 있다. (<獨座寵君>, 청대 천진 양류청 24×21cm채색

인쇄 붓그림 >)

조왕 연화에는 대부분 “하늘에 올라가 좋은 일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와 길상을 내려주소(上天言好事, 回宮[府]降吉祥)”라는 주련이 붙어있다. (<獨座竈君>, 청대 천진 양류청 24×21cm 채색 인쇄 붓 그림) 이것은 조왕신이 길상을 주관하는 또 다른 신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왕신의 제단 위에는 향로와 초가 놓여 있고, 제단 아래에는 대부분 취보분(聚寶盆)이 놓여있다. 이 외에도 길상을 상징하는 신선들을 많이 그려져 있고, 기린송자, 선동의 원보(元寶) 등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길상을 의미한다. 재공(財公)과 재모(財母)가 취보분의 좌우에 앉아 있고, 취보분 위로 ‘周元通寶’라는 요전수(搖錢樹)가 있다. 이 때 이시선관(利市仙官)과 선녀가 앞으로 나아가 조왕신을 호위한다. 팔선(八仙)을 그려 넣어 ‘조왕마(竈王馬)’로 하여금 길상(吉祥)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고 있다 (<麒麟送子竈> 청말 산동 유현 47×33cm)

어떤 연화에는 제단 아래에 ‘재신부(財神府)’, 마루의 중간에 ‘복(福)’자, 대련에 “천하재원주(天下財源主)”, “인간부귀신(人間富貴神)”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두 명의 복록재신(福祿財神)이 문안으로 들어와 복을 내리고 재물을 주니, 주인은 한없이 은혜에 감사하고 몸을 굽혀 사례한다. 무릎 앞에는 동자가 폭죽을 터뜨려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財神進門竈> 청말 산동 유현 35×29cm 채색 인쇄)

이 연화를 보면, 조왕신이 재물신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화 속의 조왕신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가정의 안전을 기원하는 부엌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운명과 수명을 주관하는 사명신이기도 하다. 또한 조왕신은 때로 길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주관하기도 한다. 이 모두 조왕신의 사명 코드에 대한 기복적인 해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矛盾과 사상의 統合的 해독: 하나에서 백까지

사람들은 중국 연화를 통해 모순의 융합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자등과(五子登科)> 연화가 그것이다. 이 연화에는 팔선(八仙)이 등장하는데, 팔선은 본래 세속의 욕망을 모두 버리고 신선이 된 자들이다. 반면에 과거급제한 다섯 동자는 관직과 명예의 상징이다. 이 둘은 분명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화면에 배치되어 있다. 연화 속의 동자들은 기린(麒麟)의 등에 타거나, 큰 깃발을 휘날리며, 작은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춘다. 동자의 손에는 대부분 모란, 여의, 금리어(金鯉魚)가 들려 있다. (<五子登科> 청, 山東濰縣, 52×63 《中國吉祥圖集成》, 河北人民出版社, 1992) 모두 부귀영달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팔선과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모순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연화는 또한 상이한 사상과 종교의 통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일단화기도(一團和氣圖)> 연화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그림은 명나라 주견심(朱見深 1447—1487)이 성화(成化) 원년(1465)에 처음 그렸다. 동진(東晉)의 명승(名僧) 혜원(慧遠 334—416)이 육수정(陸修靜:南朝시대 도사)과 도연명(陶淵明)을 전송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호계삼소(虎溪三笑:호계사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다)’라는 것이다. 고사(高士) 세 명을 한꺼번에 그린 것인데, 하나의 얼굴이 정면과 양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세 사람이 껴안고 있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보인다. 그림 위에는 ‘위대 하도다! 달인이여. 높고 멀리 바라보는구나. 답소하는 모습이 단아하고, 하늘을 우리러 땅을 굽어 부끄러움이 없도다. 세 사람이 하나로 합쳐져 한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룩하였다. 이것과 저것의 옳고 그름을 잊고 하나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어우러졌다.(偉哉達人, 遐觀高視: 談笑有儀, 俯仰不愧. 合三人以爲一, 達一心而無二: 忘彼此之是非, 藹一團之和氣)’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이 제화로부터 이 연화는

사상과 종교의 통합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속의 한 동자는 손에 ‘一團和氣’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머리 위에는 꽃모양을 두른 ‘致祥’ 편액이 있다. 이것은 통합적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一團和氣>, 淸初 江蘇 揚州 83.2×56.5cm)

연화 속의 융합은 등장인물의 수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이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셋이 되기도 하고, 다섯(五)이 팔(八)과 조응하기도 한다. 팔은 다시 백(100)이 된다. ‘八仙’과 ‘八結’이 ‘百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백길(百吉)> 연화 속의 동자는 부용화 한 떨기와 선명한 붉은 색으로 매듭을 지은 ‘백길(百吉)’을 손에 들고 있다. ‘八結’은 실매듭으로 머리와 꼬리가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반장(盤長)’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본래 근원이 깊고 흐름이 심원하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다. 불교 예술 중에서 ‘팔보길상(八寶吉祥)’ 도안도 이와 관련 있다. 이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관통하고, 일체 사물이 융통한다(回環貫徹, 一切通明)’는 불교사상을 상징한다. ‘百吉’은 바로 ‘八結’의 발음이 변한 것이다. (<百吉圖>, 명대 50×24cm 비단)

숫자 백의 예로는 <百子圖>(청 강소 소주 101.4×53.5cm)를 들 수 있다. 이것을 ‘주문왕백자(周文王百子)’라고도 부르는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다는 뜻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문왕의 상서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 속에는 수많은 동자들이 각종 놀이를 하고 있다. 거문고를 켜며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 연을 날리는 아이, 공중 사다리에 앉아있는 아이, 용등 춤을 추는 아이,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 팽이 치는 아이, 귀뚜라미 놀이하는 아이 등 천태만상의 모습이다.

또한 이질적 요소가 확대되는 것도 있다. 走馬燈人이 좋은 예이다. 소주 지역에서 유행하던 주마등에는 개별적인 길상 코드가 일련으로 연결되어 있다. 왼쪽 위부터 재신과 利市仙宮, 張仙持弓, 一捧彈盒童子, 壽星騎鹿, 仙童敬酒이며, 아래는 和合二仙, 賜福天官, 抱瓶童子, 魁星點斗, 獨占鰲頭, 新科及第는 돈벌기, 아들 낳기, 祝壽, 부부의 금슬, 다복, 장원급제 등이 배치되어 있다. (<吉祥走馬燈人>, 청대 소주, 25×30cm 채색 인쇄) 이것은 대중들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욕망의 극대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중국 연화를 통해 모순과 이질적 사상과 종교를 융합하려고 했거나 여러 개의 욕망을 한 데 집중시켰는데, 이것은 모두 코드에 대한 통합적인 해독의 결과였다.

6. 결론

명대에 이르러 연화가 다량으로 제작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체계 속에서 유통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화는 대중들의 매체 역할을 담당하였다. 생산자는 관습적으로 연화의 기호 속에 욕망 코드를 부여하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욕망이나 대안적인 기준 내에서 상징을 재구성한다. 연화의 생산자의 기호화(encoding)에 대해 소비자들은 기호해독(decoding)을 달리 한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망은 연화의 이미지와 상징을 새롭게 생산하기도 하였다.

장수를 상징하던 동방삭이 수많은 길상물과 혼합하면서 새로운 길상적 해독을 낳았고, 벽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장군이 동자들과 어울리며 진경적으로 해독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던 조왕신이 재물신이 되면서 기복적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 연화를 통해 모순과 이질적 사상과 종교를 융합하였고, 여러 개의 욕망을 한 데 집중시켜 코드를 통합적으로 해독하였다.

연화의 해독 과정에서 보면, 등장인물 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상징물이 혼합하기도 하였으며, 형상이 다의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대중들은 인격과 신격을 넘나들었고, 모순을 융합시키는가 하면, 종교와 사상을 통합하기도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명대에 이르러 연화는 중국인들의 욕망체계 확립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중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李志強, 王樹村(1992), 《中國楊柳青木板年畵集》, 天津: 天津楊柳青畵社.
 天津市藝術博物館(1984), 《楊柳青年畵》, 北京: 文物出版社.
 薄松年(1998), 《中國門神畵》, 廣州: 嶺南美術出版社.
 薄松年(1986), 《中國年畵史》, 沈陽: 遼寧美術出版社.
 薄松年(1990), 《中國民間年畵選》, 南昌: 江西美術出版社.
 薄松年(2008), 《中國年畵藝術史》, 長沙: 湖南美術出版社.
 王樹村(1985), 《中國美術全集 繪畵編 21》,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王樹村(1992), 《中國吉祥圖集成》,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王樹村(2005), 《中國門神畵》, 天津人民出版社.
 沈泓(2007), 《尋找逝去的年畵: 高密年畵之旅》, 吉林人民出版社.
 沈泓(2007), 《楊柳青年畵之旅》, 吉林人民出版社.
 沈泓(2007), 《門上春秋》, 中國工人出版社.
 舒惠芳, 沈泓(2007), 《凡塵谷子》, 中國工人出版社.
 吳祖鯤(2007), <傳統年畵及其民間信仰價值>, 《中國人民大學學報》6期.
 吳祖鯤(2008), <傳統文化的民間形態>, 《學習與求索》11期.
 馮驥才(2008), 《中國木板年畵集成·綿竹卷》, 中華書局.
 Flath, James. *The Cult of Happiness: Nianhua, Art and History in Rural North China*.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4.
 Johnson, David and Po Sung-nian. *Domesticated Deities and Auspicious Emble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Wachs, Iris. *Half a Century of Chinese Woodblock Prints: from the Communist Revolution to the Open Door Policy and Beyond*. Israel: Museum of Art Ein Harod, 1999.
 Wang Shucun. *Paper Joss*. Beijing: New World Press, 1992.
 ————. *Ancient Chinese Woodblock New Year Prints*.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85.

Yü Chün-fang.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h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Kardos, Michael Anthony. "God of the Gate, Protector of the Door: Door Gods(Menshen) in Chinese Popular Religion." M.A. the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8.

< 中文提要 >

中國年畫如<一品當朝>、<滿載而歸>、<財源聚寶>、<麒麟送子>、<張仙送子>、<福祿壽星>、<珍寶財神>、<和合二仙>、<天官賜福>等作品具有固有的象徵內蘊,也有辟邪、進慶、吉祥、鑑戒的功能.到了明代時期有了年畫的象徵內蘊產生變化,其變化是由消費者的解讀(decoding)引起的. 例如民間年畫中對於東方朔、二將軍、竈王神的象徵,都是隨著消費者的解讀加上新的象徵. 在明代以前,東方朔只不過是長壽的神仙. 到了明代,東方朔跟蟠桃、鹿、三星、如意、蝙蝠、八仙、松鶴等象徵結合起來,在人民的認識中,東方朔不僅能夠長壽,而且還能為人們帶來的吉祥,也增添了新的象徵.

二將軍是防鬼辟邪的. 到了明代,二將軍跟童子紫金冠、元寶、暗八仙、橫笛、葫蘆、拍板、漁鼓等結合起來,增添了連生貴子、五子登科的含義. 竈王神是管人間的善惡的. 明代後成了財神'天下財源主、人間富貴神、福祿財神.

總之,到了明代,中國年畫對中國人的慾望系統的形成立了至大的影響,中國人的慾望成了年畫生產的原動力.

關鍵詞: 年畫、記號化(encoding)、解讀(decoding)、慾望、辟邪、進慶、吉祥、鑑戒、東方朔、竈王神、二將軍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30.	2012. 8. 2.	2012. 8. 16.	2012. 8. 21.	2012. 8. 31.